

장애인의 텔레워크

다케나카(竹中) 나미 / 사회복지 법인 프롬 스테이션

클린턴 대통령의 선언과 국방성

작년 가을부터 위원을 역임하는 연구회(노동성)의 일원으로 [챌린지드 텔레워크]를 테마로 한 미국 시찰을 다녀와서 작성한 리포트를 발표하겠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지극히 일상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장애인들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텔레워크를 포함한 업무용 도구로서는 하이테크 기업에서 개발 등 일반적인 일에 비교해서 급여수준이 높은 직종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장애인의 실업률은 75%에 달한다. 이들의 고용 추진을 위해 (우리가 시찰로 방문하기 직전) 9월 30일 클린턴 대통령은 [전국 장애인 고용 인지의 달]을 선언했다.

이 선언문 중에서 [정부 스스로가 지적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고용과 승격을 평등하게 하는 기업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대통령 명령을 발표했다] 라는 부분에 미국정부의 기본자세(관과 민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무척 흥미로웠다.

[관이 스스로 솔선해서]라는 구체적인 예로서 장애인의 텔레워크에 관한 연구가 제일 먼저 추진된 것은 놀랍게도 국방성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방성에서 장애인의 텔레워크 연구와 추진을 행하는 행동은 CAP(Computer/Electronic Accommodations Program)라 하고 프로젝트 리더는 다이애나 코엔이라는 나처럼 (건강한 이줌마)였다. CAP의 팜플렛에는 <표 1>과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

< 표 1 >

[전국 장애인 고용 인지의 달]

(또는 [전국 장애인 고용 의식 향상의 달])

미국 대통령 윌리엄 클린턴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가족이나 지역뿐만 아니라 일에 의해서 즉 어떠한 인간인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가에 따라 자신들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백만명이나 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치기 때문에 그런 자각을 가질 수가 없다. 4.2%라는 근대에 없는 낮은 실업률인 지금, 장애인의 실업률은 대부분 사람에게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5%에 달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현행 법률에서는 그들이 일하게 되면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나는 당파를 초월한 (노동 장려 개혁안)을 의회에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에 종사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의료 보장제도를 적용시켜 치료를 받기 쉽게 하는 내용이다. 어떤 미국 국민도 일로 인해 의료 보험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이 보장하려는 것이다.

(노동 장려 개혁안)에 덧붙여 우리 정부는 장애인의 특별 교통비나 혹은 고용을 위한 지출비 삭감을 위해 그들에 대해서 천 달러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포함한 예산안을 제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점자번역, 휴대전화, 음성인식 기술 등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테크놀로지에의 투자액을 두배로 증가시키는 제안도 하고 있다. 1999년 6월 나는 정부가 지적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 고용과 승격을 평등하게 하는 기업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대통령 명령을 발표했다.

2000년은 ADA법의 10주년 기념임과 동시에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의 25주년 기념이기도 하다. 이 두개의 획기적 법안은 우리 나라 장애인에 대한 법안 개혁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 각 국에도 표준안이 되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전형적인 파괴적 사고를 뒤집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분야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어떠한 사회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고용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금년은 고용의 벽을 타파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언론, 예능, 예술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출 예정이다. 예를 들면 세계를 날아다니며 멋진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저널리스트 존 호켄베리는 휠체어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조카가 마이클 나란조나 귀가 들리지 않는 화가 알렉스 윌하이트 등의 예술가는 장애라는 것이 예술을 참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클래식 교육을 받은 가수 라우리 루빈씨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오페라 무대에 서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커다란 가능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미국 전국민이 장애인을 포함한 노동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장려하고자 의회는 매년 10월을 (전국 장애인 고용 인지의 달)로 명시했다.

그래서 여기에 나 미국 대통령 윌리엄 클린턴은 1999년 10월을 (전국 장애인 고용 인지의 달)이라 선언한다. 나는 정부 관료, 교육자, 노동 지도자, 고용주로서 미국 국민이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통해서 ADA 법안 정신을 수행할 결심을 재인식할 것을 호소한다.

1999년 9월 30일



... 장벽을 없앤다

오늘날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숙련된 사원은 중요한 재산이다. 국방성에서는 언제나 재능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 국방성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적절한 설비만 있으면 국방성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국방성에서는 장애가 있는 연구원이 부딪치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전자 설비 프로그램(CAP)을 설립했다. 사무실에 보조설비를 갖추어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켜 나간다. 보조 설비가 있으면 업무의 폭도 넓힐 수 있고 현재의 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보조 디바이스는 연구원의 기술이나 능력을 높여 일에 대한 만족감도 커지게 된다. CAP는 국방성의 장애를 가진 연구원, 장애를 가진 연구원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및 국방성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능하고 있다.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99-506 및 100-542에 기초해서 국방성의 활동을 돕고 있다.

CAP는 보조기구를 제공한다

- 보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구
- 적절한 디바이스를 선택하게 협력한다
- 설비를 조달하기 위한 기금



그 외 CAP의 활동

- 수화통역, 인적지원 등, 3일 이상 교육훈련 부문에 참가하는 장애가 있는 연구원을 보조하기 위한 경비를 제공
-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기 위한 교육 실시.
- 직장을 접근하기 쉬운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조언
- CAP 서비스나 다른 장애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모든 단체에 교육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테크놀로지

CAP에서는 폭넓은 보조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디바이스는 접근성에 관련된 최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청력보조 :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신 디바이스, 보조기구, 클로즈드 캡션 레코더, 시각 수화 디바이스
- 시각보조 : 프린트 확대기, 점자 아웃풋 시스템 등
- 손 보조 : 음성인식 컴퓨터, 확대/축소 키보드, 헤드콘트롤 시스템, 키 가이드 등
- 인식보조 : 하이라이트, 발음 보조
- 커뮤니케이션 보조: 전자 통신 보조, 스피치 아웃 풋 시스템

테크놀로지 평가 센터

CAP의 테크놀로지 평가 센터(CAPTEC)는 보조 테크놀로지를 평가하기 위한 설비기관이다. 미국 국방성 관리자 및 연구원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적의 보조 기구를 선택하도록 설립되었다. CAPTEC에는 여러 가지 보조 테크놀로지 워크 스테이션이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조 기구를 선택할 때에 호환성이나 기능에 관한 의문이 생기면 CAPTEC를 방문해서 보조기구에 관한 평가를 조사의뢰 할 수 있다. 또한 CAP 스텝이 개인을 위해 보조 기구에 관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

CAP를 통해서 설비를 구하는 방법

-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가 하는 요구를 조사해서 정한다.
- 장애인, 관리자, 컴퓨터 시스템 담당자, CAP 사무국과 상담하여 가능한 옵션을 조사
- 환경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한다
- CAP에 리퀘스트 폼을 보낸다

테크놀로지는 매일 진보하기 때문에 점점 새로운 제품이 등장한다. CAP은 접근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움직인다. 적절한 설비만 있으면 장애인은 무슨 일이라도 가능하게 된다.

었다. 이 자료를 읽고 알게 된 것은 국방성이 장애인 연구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를 지원하는 기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민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다이에나의 일에 대한 열성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국방의 제일보이다] 라는 미국의 정책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정신적 충격을 안고 있는 미국이 커다란 반성아래 만들어 낸 정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며 젊은이를 전장에 내보낸 일본과는 반대되는 이 [국방의식]에 공감되는 바가 매우 컸다.

프롭이 주최하는 차기의 [장애인 저팬 포럼 (2000년 8월 30일~31에 신주쿠 게이오우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에는 꼭 다이에나를 강사로 초빙하고자 현재 친밀하게 메일교환을 하고 있다. 메일 교환 중에 다이에나 자신이 장애인(내부장예)인 것을 알게 되었다.

장애인이 공부하는 학교는?

그런데 이번 시찰에서 제일 강하게 느낀 것은 [교육의 중요성]이다. 현재 일본의 법률은 장애인에 대해 [양호학교 교육의 의무화]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 법에 따라 장애인과 일반 아동이 함께 배울 기회는 지극히 드물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도 어느 정도 교육이 보급된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수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점자 수험을 할 수 없다] [글자를 쓸 수 없는데 컴퓨터 수험은 인정할 수 없다] [주변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설비나 인적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 등등...

서로 [만날 기회] [서로 알 기회] [학문과 덕행을 닦을 기회]를 잃어버린 채 어른이 되어 시급하게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자]고 외쳐도 그것은 말처럼 그리 쉽게 되지 않는다.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몸에 익힌다는 것인데 격리되고 보호된 교육 밑에서 사회적 기능은 몸에 익혀지지 않는다.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것은 장애의 유무나 기술의 유무 이전에 우선 <사회성>의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ADA 시행 후, 어떤 장애가 있어도 유아기 때

부터 지역 학교에서 배우게 하고 많은 대학이 [시민 대학]이라는 형태로 지역 주민을 청강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민 대학]은 인터넷에서도 인기리에 개강되고 있어 [누구라도 어떤 학문(기술)에 의욕만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 균등]을 일본에서도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즉, [배우고 싶다]는 마음가짐,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자기 실현] [자기 표현]을 원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일단 사회에 나가면, 사고나 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의료적 사회복귀치료]는 있어도 학업이나 일에 복귀할 수 있는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미국은 대통령 선언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일본에 비해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보장은 충분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

이점은 우리가 충분히 배울만하다. 국방성의 CAP에서는 매년 3000명의 장애를 가진 대학생을 인턴으로 받아들여 성적이 좋은 학생은 국방성에 취직할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을 10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고 학생들이 명부는 기업에 제공되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기업과 정부의 제휴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 생각한다.

장애인의 텔레워크

기업 시찰로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다. 하이테크 기업에서는 텔레워크를 일상업무로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고, 사내외의 연락은 자택과 회사의 컴퓨터로 정보를 공유해 집에서 회사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난 [피터 윙]씨는 (내가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에 소개해 고용되었다) 맹인 청년으로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기술을 연마하였으며 현재의 위치에 이르렀는지를 명쾌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었다.

그와의 면담에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었던 분은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비 기술 센터에서 액세스빌리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가네코 마사히코(金子雅彦)씨 인데 [머지않아 피터의 부서로 옮겨 그의 밑에서 개발에 전념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피터를 만날 때까지 그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 표 3 >



[프롭 스테이션]에 대해서

한 장의 초상화가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요시다 이쿠도시(吉田幾俊)가 그려준 내 초상화이다. 요시다씨는 CG 화가를 목표로 하는 오사카의 중증 신체장애인이다. 그는 CG 공부를 프롭 스테이션의 (컴퓨터 그래픽 세미나)에서 배웠으며 현재 그곳에서 장애인에게 컴퓨터 학습 지도를 하고 있다. 그가 프롭의 한 행사 후 뒤풀이 자리에서 그려준 것이다. 나는 엉뚱한 인연으로 수년 전부터 이 프롭 후원회의 고문이 되었다. 그렇지만 명부에 이름만 올려놓았을 뿐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프롭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서 장애인의 자립, 취업과 진로를 지원하는 오사카의 NPO이다. 대표(복지부 장관 인가의 사회복지 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는 이사장이라 한다)는 다케나카(竹中) 나미씨, 통칭 [나미 아줌마]다. 중증 심신장애인인 딸을 가진 웃는 얼굴이 멋진 행동력 있는 호쾌한 (어머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내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라 불리는 시대를 맞이하여 고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구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고령자든 취업의 기회를 얻게 해 납세라는 형태나 사회 참가라는 형태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앞으로 일본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를 위한 수단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장애인에게 컴퓨터를 보급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대등한 파트너가 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생각에 찬성한 몇몇 컴퓨터 회사가 기재나 장소를 제공해 스즈키 시게아키(鈴木重昭)씨 등은 직장을 그만두고 참여했으며 많은 분들이 자원 봉사로 컴퓨터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또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심크탱크 등도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다. 여기의 지도는 무척 얕다. 취업과 진로에 관계된 이상, 약속한 일은 약속대로 완수하지 않으면 통용되지 않는다. 장애인이라 해서 봐주는 일이 없으며 숙제 등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퇴학당할 정도이다.

최근에 여기에서 배운 장애인 몇 사람은 (버츄얼 공방)을 결성, 그 결과 구체적으로 일을 얻어 일러스트 등을 수주 작성하고 있다. 또 프롭 기관지(Flanker) 등도 CG를 사용한 것인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장애인의 편집 그룹에서 작성 및 배포하고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상급의 통신교육(재택 스킵 세미나)도 1996년부터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작성기술이나 번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을 마친 수료생 중에서 몇 사람은 후배의 질문에 답해주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다른 수료자들도 재택 근무가 가능한 취직하거나 영업하는 등 진로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처럼 프롭에서 배운 장애인은 이미 300명을 넘어섰고 현재는 오사카 외에 고오베에까지 활동의 거점을 넓혀가고 있다. (활동의 상세한 사항은 <http://www.prop.or.jp> 설립부터의 경위는 다케나카 나미의 [프롭 스테이션의 도전]을 참고)

이와 같은 활동이 전국적으로 넓혀진다면 매우 멋진 것이다. 내 근무처가 있는 켄바현(千葉縣)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실을 열고 싶으나 현실이 좀처럼 용납하지 않는다. 통신회사나 컴퓨터 회사가 교실이나 기재는 제공한다고 해도 운영진이나 지도원의 확보가 어렵다. 학생은 1~2년내에 졸업한다. 자원봉사로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후원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틈 나는 대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어중간한 자세로는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

이찌가와 키(市川 熾)

지 못했다. 그래서 가네코의 상사가 될 그가 흰 지팡이를 짚고 나타날 때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흰 지팡이 사용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좀 어색했는데 후에 들은 바로는 [최근까지 조금은 보였었는데 장애가 진행된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머지않아 지팡이를 사용하는 보행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직장 동료들이 그를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에 함께 참여하려고 한다고 말해 주었다] 며 웃었다.

미국의 기업은 소위 [실력주의]가 아주 확고하여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우대]를 받지 않는다. 취직할 즈음에는 장애인도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초중고 및 대학교육을 받아 자신을 기업에 팔아 넘기는 감각을 몸에 익히게 된다. 피터도 중국에서 18세에 미국으로 건너와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후, 홍콩에서 마케팅 리서치 일에 종사했다가 바사 브라일이라는 시각 장애인용의 PC가 개발되어 그것을 사용해서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한다. [입시때 시험문제는 FD로 주었다]고 했다.

1991 ~ 92년에 걸쳐서 하이테크 기업 대부분의 업무가 windows로 하게 된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는 [무척 나쁜 뉴스]였는데 그는 [PC일을 그만 둘까] [어디로 날아가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을까] 하는 두 가지 선택 중 후자를 선택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입사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12시간이나 되는 면접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의 기능을 시험받았다]고 한다. 피터의 사무실 벽에는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라는 빌 게이츠의 말이 걸려 있었는데,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한 것은 바로 그 비전 때문이다] 라고 확실한 애초로 말하는 피터의 표정은 [매우 우수한 기업 전사] 바로 그것이었다.

미국기업의 이 엄격함을 일본 풍토에 곧이곧대로 옮겨 놓는 것은 곤란하지만 기초 연금제도가 있는 일본에서 [교육받을 기회의 균등한 보증]과 [업무기능을 몸에 익힐 수 있는 기관의 충실]을 도모한다면 현재의 10배, 혹은 100배? 이상으로 장애인 취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결국은 경제 사회를 지원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

NGO와 NPO의 협력체제

미국에서는 장애인에게 업무 기능을 몸에 배이게 할 경우,

먼저 그 주의 사회복지치료국에서 [진찰]을 받아 [어떤일]을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진단] 받는다. 이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고 싶다]는 의사표명이 필요하다.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에게에는 취업 촉진을 위한 공적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솔직한 이유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후, 사회복지치료국과 제휴하는 NPO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장치 등의 [설비지도]를 한다. 기업의 [장애인 연수기관]으로서 기능을 완수하는 NPO도 있다. 그러한 NPO는 프롭처럼 [일하고 싶은 당사자의 욕구]에서 만들어진 자립 지원조직이다.

NPO는 장애인의 요구를 공공기관 보다 잘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운영경비를 공영으로 하기 것보다 적게 들고, NPO라서 공공기관과의 좋은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장애인 고용 대통령 지원 위원회에서도 [미국에 있어서는 NPO/NGO의 힘은 매우 강력해서 NPO/NGO와의 제휴 없이는 이렇다할 시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들었다. NPO 운영은 특히 장애인 관계기관은 어디나 자금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책임감이 강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NPO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시책을 담당한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 NPO는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통감하고 있다.

프롭 스테이션의 역할

마지막으로 일본보다 텔레위크가 앞선 미국일지라도 중증 장애인이 텔레위크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터미디어 기능을 가진 NPO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프롭 활동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얼마되지 않는 실험 계획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5%의 실업률과 일본과 같은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앞에서 미국도 [중증 장애인이 텔레위크 하는 것을 지원하는 인터미디어]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걸 CAP나 대통령 위원회의 사람들, 혹은 텔레위크를 추진하는 NPO 사람들의 말투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시찰 여행은 프롭 활동 사례가 많은 국가의 참고사례가 되도록 운영자로서 분발해야 할 것을 일깨운 경험이라고 할 것이다. 